

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확대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의 확대에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. 이와 같은 제도의 확대는 특정 보건의료기관(2차, 3차) 특히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증가되어 가고 있는 건강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따라서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을 놓여놓은 것만 아니라 중·소도시 및 대도시에서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“서기 2000년까지 전인류에게 건강을”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.

환자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

— 경상남도 일부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성인환자 중심으로 —

진주간호전문대 논문집 제12권 제1호, pp. 81~100. 1989

백 명 화

본 연구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환자 자신들의 인식정도를 조사하고 환자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1988년 12월1일부터 12월30까지 경상남도에 위치한 10개 지역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성인환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149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.322로 비교적 높았으며 높게 반응한 문항을 순위별로 보면 의료인으로부터 신중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(M=4.785), 예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받을 권리(M=4.604), 사전에 검사와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(응급상태는 제외)(M=4.517), 타당한 치료와 간호가 계속될 것을 기대할 권리(M=4.446), 퇴원 후에도 건강관리를 계속 받을 권리(M=4.345)의 순이었다.

낮게 반응한 문항을 순위별로 보면 자신의 간호와 치료에 관계되는 다른 기관(보건사회부, 보험공단, 행정당국)에 대해 알 권리(M=3/892), 진료소(병원 규칙과 규정에 대해 알 권리(M=4.061), 만약 입원 상태라면 입원기간동안이나 의료인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 권리(M=4.156)의 순이었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 권리에 대한 문항과의 상관관계에서는 27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